

“보성의 ‘숨은 비경’ 아시나요”



보성군이 선정한 '삼삼오오 보성 여행지 10선' 중 한 곳인 벌교읍 중도방죽. (보성군 제공)

보성군, 코로나시대 거리두기 중도방죽·대원사 권역 등 '삼삼오오 여행지 10선' 발표

보성군 12개 읍면에서 추천한 소규모 인원이 여행할 수 있는 보성의 숨은 비경을 아시나요?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시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규모 인원으로 여행할 수 있는 '삼삼오오 보성 여행지 10선'을 발표했다. 보성 여행지 10선은 ▲중도방죽 ▲대원사 권역

(대원사 갈·백민미술관·티벳박물관) ▲장도 권역 (장도·갯벌체험) ▲활성산성 편백숲 보부상길 ▲오봉산 권역 (해평저수지·비니거파크) 등이다. 또 ▲매타세쿼이아길 권역 (복내·미력 매타세쿼이아길·웅기체험) ▲명봉역 권역 (명봉역·보성의명기념관) ▲득량만 권역 (비봉마리나·득량만 바다낚시공원) ▲다라금 솔밭 유원지 ▲보성강 용정권역 어울마당 등이다.

삼삼오오 보성 여행지는 지역 비경으로 알려진 곳들을 중심으로 12개 읍면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공간이 넓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으며 관광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고려했다.

보성군은 문화관광 콘텐츠를 전담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oseongtour>)를 개설하고 삼삼오오 보성 여행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에 따라 보성 삼삼오오 여행지에서 힐링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우주해양리조트특구 확대 개발

고흥군은 영남면 남열리에 추진 중인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조성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는 115만8000㎡ 부지에 숙박시설 920실과 우주해양전망대, 대중 골프장 등 대규모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민간투자 개발 사업이다.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쟁트랙·모노레일 등의 사업이 추가돼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로 연장됐다. 사업비도 당초 3661억원에서 4075억원으로 414억원 늘었다.

고흥군은 개발계획 연장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28일에는 영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올해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고흥군의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지난해 구례 5일시장 주자장에서 운영된 '구례 감 직거래 장터'. (구례군 제공)

구례군 내일부터 '감 직거래 장터' 운영...90여 농가 참여

구례군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구례 감' (단감·대봉)의 집중 출하 시기를 맞아 28일부터 '구례 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 장터는 구례5일시장이 열리는 28일과 11월 3·8·13·18일 등 총 5차례 운영된다.

구례 감은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환경과 낮과 밤의 큰 일교차, 비옥한 토질로 과육이 단단하고 저

장성이 뛰어나며 색이 좋고 당도 역시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감 분야 탑푸르트(Top Fruit) 대상을 받는 등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리는 구례 감 직거래 장터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5일시장 주자장에서 운영하며 총 90여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읍촌 도성마을 축사 악취 해결되나

권오봉 시장 주재 현장 간부회의 정주 여건 개선안 등 대책 논의

여수시가 축사 악취로 고통을 받는 도성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읍촌면 도성마을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봉 시장 주재로 '축사악취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열었다.

권 시장은 회의에 앞서 도성마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을 방문해 축산 농가 분뇨 처리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마을 이장 등 주민대표 4명과 함께 악취 악취 해결방안과 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부회의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 개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사사업과 산단 악취 및 대기오염 모니터링 등 실행 가능한 방안도 논의했다.

여수시는 도성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개 관계 부서와 함께 기획팀을 운영



여수시는 최근 읍촌면 도성마을에서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봉 시장 주재로 '도성마을 축사 악취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하고 있으나 부시장을 단장으로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권 시장은 “도성마을의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관계 축산농가들과 여러 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주민들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한마음으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성마을은 1975년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됐으며 한센인 70명 등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20여 농가만 남았고 석면 축사가 방치되면서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순사건 다룬 영화 '동백' 베를린인권영화제 출품

현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이 내년 2월 베를린인권영화제에 출품된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영화 '동백'은 최근 전남 문예회관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첫선을 보인 데 이어 11월에는 국회에서 여순사건 서울유족회와 국회의원에게 상영될 예정이다.

내년 2월 베를린인권영화제에 진출하고, 4월 중 전국 영화관에 개봉할 계획이다.

영화 '동백'은 여순사건 부역자로 아버지를 잃은 노인 황순철과 가해자의 딸 장연실의 세대를 이어 온 악연을 풀기 위한 갈등과 복수, 화해와 용서를 담은 영화다.

원로 배우 박근형과 김보미, 정선일 등 연기파 배우들이 호흡을 맞췄다.

영화 후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위해 모집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에는 시민 사회단체와 여수산단 업체, 유족회와 시민들이 참여해 두 달 만에 목표액인 5000만원을 모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영화 '동백'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수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오는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뒤흔세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玉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 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 갑자보(184년)
- ◆ 계해보(1863년)
- ◆ 정미보(1907년)
- ◆ 갑오보(1954년)
- ◆ 병진보(1976년)
- ◆ 기묘보(1999년)
- ◆ 학사공파(1935년)
- ◆ 평장사공파(2012년)
- ◆ 의령옥씨 1500년사
-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 편찬위원장: 옥 삼중, 옥 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치남 010-3550-8912